**국립국어원 표준발음법에 의거한**

**Phonological Rule Derivation from Orthography for G2P**

조예진

**제1-7항자/모음 소개. 모음 발음 규칙과 장단 규칙. (생략)**

**제8항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음절 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자음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훈민정음"에서는 ‘ㅅ’이 하나 더 있어서 8종성(終聲)이었는데, 그 뒤에 ‘ㅅ’이 ‘ㄷ’으로 실현됨으로써 현대 국어에서는 7개가 되었다. **이 7개의 자음으로 음절 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제9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R1]

>> /(ph|pp)(-|$)[^vowel]/ -> /p0(-|$)[^vowel]/

>> /(th|tt|s0|ss|c0|ch)(-|$)[^vowel]/ -> /t0(-|$)[^vowel]/

>> /(kh|kk)(-|$)[^vowel]/ -> /k0(-|$)[^vowel]/

\*애매한 케이스: /hh/ -> 이후 12항 ‘ㅎ’규칙에서 다루도록.

**제9항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R2]

>> /(kh|kk)(-[conso]|$)/ -> /k0(-[conso]|$)/

>> /(s0|ss|c0|ch|th)(-[conso]|$)/ -> /t0(-[conso]|$)/

>> /ph(-[conso]|$)/ -> /p0(-[conso]|$)/

* 닦다[닥따]
* 키읔[키윽]
* 키읔과[키윽꽈]
* 옷[옫]
* 웃다[욷ː따]
* 있다[읻따]
* 젖[젇]
* 빚다[빋따]
* 꽃[꼳]
* 쫓다[쫃따]
* 솥[솓]
* 뱉다[밷ː따]
* 앞[압]
* 덮다[덥따]

**해설**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앞에서 ‘ㄲ, ㅋ’，'ㅅ, ㅆ, ㅈ, ㅊ, ㅌ’ 및 ‘ㅍ’이 각각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받침 ‘ㄲ, ㅋ’은 받침 ‘ㄱ’과 같이 [ㄱ]으로 발음하고 받침 ‘ㅅ, ㅆ, ㅈ, ㅊ, ㅌ’은 받침 ‘ㄷ'과 같이 [ㄷ]으로 발음하며, ‘ㅍ’은 받침 ‘ㅂ’과 같이 [ㅂ]으로 발음한다.

* 박[박]
* 밖[박]
* 부엌[부억]
* 꺾다[꺽따]
* 닦다[닥따]
* 낫[낟]
* 낮[낟]
* 낯[낟]
* 낫다[낟ː따]
* 낮다[낟따]
* 있었다[이썯따]
* 낱[낟ː]
* 밭[받]
* 받다[받따]
* 맡다[맏따]
* 뱉다[밷ː따]
* 집[집]
* 짚[집]
* 집다[집따]
* 곱다[곱ː따]
* 짚다[집따]

받침 ‘ㄴ, ㄹ, ㅁ, ㅇ’은 변화 없이 본음대로 각각 [ㄴ, ㄹ, ㅁ, ㅇ]으로 발음된다. 그리하여 제8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음절 말 위치에서 7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셈이다.

**제10항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R3]

>> /ks(-[conso]|$)/ -> /k0(-[conso]|$)/

>> /nc(-[conso]|$)/ -> /nn(-[conso]|$)/

>> /(lp|ls|lT)(-[conso]|$)/ -> /ll(-[conso]|$)/

>> /ps(-[conso]|$)/ -> /p0(-[conso]|$)/

* 넋[넉]
* 넋과[넉꽈]
* 앉다[안따]
* 여덟[여덜]
* 넓다[널따]
* 외곬[외골]
* 핥다[할따]
* 값[갑]
* 없다[업ː따]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R4]

>> /p0aalp-[conso]/ -> /p0aap0-[conso]/

>> /nnvvlp-[conso]/ -> /nnvvp0-[conso]/

**(1)**

* 밟다[밥ː따]
* 밟소[밥ː쏘]
* 밟지[밥ː찌]
* 밟는[밥ː는→밤ː는]
* 밟게[밥ː께]
* 밟고[밥ː꼬]

**(2)**

* 넓-죽하다[넙쭈카다]
* 넓-둥글다[넙뚱글다]

**해설**두 개의 자음으로 된 겹받침 가운데, 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앞에서 ‘ㄳ’은 [ㄱ]으로, ‘ㄵ’은 [ㄴ]으로 발음되고, ‘ㄼ, ㄽ, ㄾ’은 [ㄹ]로 발음되며, ‘ㅄ’은 [ㅂ]으로 발음됨을 규정한 것이다. 겹받침에서 둘째 받침이 탈락하는 경우이다.

* 몫[목]
* 몫도[목또]
* 몫까지[목까지]
* 얹다[언따]
* 얹지[언찌]
* 얹고[언꼬]
* 얇다[얄ː따]
* 얇지[얄ː찌]
* 얇고[얄ː꼬]
* 훑다[훌따]
* 훑지[훌찌]
* 훑고[훌꼬]

‘ㄽ’은 ‘한 곬으로[한골쓰로], 외곬으로[외골쓰로]’와 같은 경우에 쓰인다.  
  
다만. 받침 ‘ㄼ’은 일반적으로 ‘여덟[여덜], 엷고[열ː꼬]’와 같이 [ㄹ]로 발음하는데, 다만 ‘밟다’만은 ‘밟다[밥ː따], 밟지[밥ː찌], 밟게[밥ː께]’ 등과 같이 [ㅂ]으로 발음되는 예외적인 것이다. 따라서 ‘밟는’도 [밤ː는]으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 되고, [발ː른]은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 발음이 된다.  
  
‘넓다’의 경우에도 [ㄹ]로 발음하여야 하나, 다만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에 ‘넓’으로 표기된 것은 [넙]으로 발음한다. ‘넓적하다[넙쩌카다],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등이 그 예들이다. [ㄹ]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아예 ‘널따랗다, 널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얄따랗다, 얄찍하다, 얄팍하다’ 등과 같이 표기하도록 한글 맞춤법 제2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1항과 함께 제12항에서 보인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규정은 결국은 자음 앞에서 겹받침의 어느 하나를 취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것인데, 현대의 우리말에서는 세 개의 자음을 이어서 모두 발음할 수가 없고 두 개까지만 발음할 수 있는 구조상의 제약에 따름을 각각 규정한 것이다. 자음 앞에서의 겹받침의 발음은 세대에 따라 또는 방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상의 표준 발음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11항겹받침 ‘ㄺ, ㄻ,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R5]

>> /lk(-[conso]|$)/ -> /k0(-[conso]|$)/

>> /lm(-[conso]|$)/ -> /mm(-[conso]|$)/

>> /lP(-[conso]|$)/ -> /p0(-[conso]|$)/

* 닭[닥]
* 흙과[흑꽈]
* 맑다[막따]
* 늙지[늑찌]
* 삶[삼ː]
* 젊다[점ː따]
* 읊고[읍꼬]
* 읊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R6]

>> /lk[+용언]-k0/ -> /ll[+용언]-k0/

* 맑게[말께]
* 묽고[물꼬]
* 얽거나[얼꺼나]

**해설**역시 겹받침에 대한 규정이다. 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 앞에서 겹받침 ‘ㄺ, ㄻ, ㄿ’이 ‘ㄹ’을 탈락시키고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함을 규정한 것이다. 겹받침에서 첫째 받침인 ‘ㄹ’이 탈락하는 경우다.

* 칡[칙]
* 칡도[칙또]
* 칡까지[칙까지]
* 앎[암ː]
* 앎도[암ː도]
* 앎과[암ː과]
* 닮다[담ː따]
* 닮지[담ː찌]
* 닮고[담ː꼬]
* 읊다[읍따]
* 읊지[읍찌]
* 읊고[읍꼬]

다만. 그런데 ‘ㄺ’은 위에 예시한 체언의 경우와는 달리 용언의 경우에는 뒤에 오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발음된다. 즉 ‘ㄷ, ㅈ, ㅅ’ 앞에서는 [ㄱ]으로 발음하되(①), ‘ㄱ’ 앞에서는 이와 동일한 ‘ㄱ’은 탈락시키고서 [ㄹ]로 발음한다(②).

[R7]

>> /lk-(t0|c0|s0)/ -> /k0(t0|c0|s0)/

>> /lk-k0/ -> /ll-k0/

① [ㄱ]으로 발음하는 경우

* 맑다[막따]
* 맑지[막찌]
* 맑습니다[막씀니다]
* 늙다[늑따]
* 늙지[늑찌]
* 늙습니다[늑씀니다]

② [ㄹ]로 발음하는 경우

* 맑게[말께]
* 맑고[말꼬]
* 맑거나[말꺼나]
* 늙게[늘께]
* 늙고[늘꼬]
* 늙거나[늘꺼나]

파생어들인 ‘갉작갉작하다, 갉작거리다, 굵다랗다, 굵직하다, 긁적거리다, 늙수그레하다, 늙정이, 얽죽얽죽하다’ 등의 경우에도 ‘ㄱ’ 앞이 아니므로 역시 [ㄱ]으로 발음한다. [ㄹ]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제21항)에서 아예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등과 같이 ‘ㄹ’만을 받침으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2015.7.10**

**제12항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ㄶ, ㅀ)’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R8]

>> /(hh|nh|lh)-k0/ -> /-kh/

>> /(hh|nh|lh)-t0/ -> /-th/

>> /(hh|nh|lh)-c0/ -> /-ch/

놓고[노코]

* 좋던[조ː턴]
* 쌓지[싸치]
* 많고[만ː코]
* 않던[안턴]
* 닳지[달치]

[붙임 1] 받침 ‘ㄱ(ㄺ), ㄷ, ㅂ(ㄼ), ㅈ(ㄵ)’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R9]

>> /(k0|lk)-hh/ -> /-kh/

>> /t0-hh/ -> /-th/

>> /(p0|lp)-hh/ -> /-ph/

>> /(c0|nc)-hh/ -> /-ch/

* 각하[가카]
* 먹히다[머키다]
* 밝히다[발키다]
* 맏형[마텽]
* 좁히다[조피다]
* 넓히다[널피다]
* 꽂히다[꼬치다]
* 앉히다[안치다]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R2\_#2]

>> /(s0|ss|c0|ch|th)(-[conso]|$)/ -> /t0(-[conso]|$)/

[R9]

>> /t0-hh/ -> /-th/

\*rule ordering: [R2]->[R9]

* 옷 한 벌[오탄벌]
* 낮 한때[나탄때]
* 꽃 한 송이[꼬탄송이]
* 숱하다[수타다]

**2. ‘ㅎ(ㄶ, ㅀ)’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R10]

>> /(hh|nh|lh)-s0/ -> /(hh|nh|lh)-ss/

* 닿소[다쏘]
* 많소[만ː쏘]
* 싫소[실쏘]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R11]

>> /hh-nn/ -> /nn-nn/

* 놓는[논는]
* 쌓네[싼네]

[붙임] ‘ㄶ, ㅀ’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R12]

>> /nh-nn/ -> /nn-nn/

>> /lh-nn/ -> /ll-nn/

* 않네[안네]
* 않는[안는]
* 뚫네[뚤네→뚤레]
* 뚫는[뚤는→뚤른]

\* ‘뚫네[뚤네→뚤레], 뚫는[뚤는→뚤른]’에 대해서는 제20항 참조.

**4. ‘ㅎ(ㄶ, 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R13]

>> /(hh|nh|lh)-[vowel]/ -> /-[vowel]/

* 낳은[나은]
* 놓아[노아]
* 쌓이다[싸이다]
* 많아[마ː나]
* 않은[아는]
* 닳아[다라]
* 싫어도[시러도]

**해설**받침 ‘ㅎ’은 그와 결합되는 소리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하기 때문에 받침 ‘ㅎ’에 관련된 것들을 편의상 한데 묶어 이 항에서 규정하였다.  
  
1. 받침 ‘ㅎ’과 이 ‘ㅎ’이 포함된 겹받침 ‘ㄶ, ㅀ’ 뒤에 ‘ㄱ, ㄷ,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결합된 경우에는 ‘ㅎ+ㄱ→ㅋ, ㅎ+ㄷ→ㅌ, ㅎ+ㅈ→ㅊ’과 같이 축약시켜 각각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R8] (중복)

>> /(hh|nh|lh)-k0/ -> /-kh/

>> /(hh|nh|lh)-t0/ -> /-th/

>> /(hh|nh|lh)-c0/ -> /-ch/

* 놓고[노코]
* 놓던[노턴]
* 놓지[노치]
* 많고[만ː코]
* 많던[만ː턴]
* 많지[만ː치]
* 앓고[알코]
* 앓던[알턴]
* 앓지[알치]

받침 ‘ㅎ’은 현대어에서 용언 어간에만 쓰이기 때문에 위의 규정은 용언의 활용에만 적용된다. 그리하여 1에서는 용언의 경우에만 예시하였다. 다만 ‘싫증’은 [실쯩]으로 발음한다.

[R14] ‘싫증’ 예외

>> /s0iilh-c0xxng/ -> /s0iill-ccxxng/  
  
붙임 1. 그런데 한 단어 안에서 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ㄱ, ㄷ, ㅂ, ㅈ] (겹받침에 포함된 경우도 포함) 다음에 ‘ㅎ’이 오는 경우에도 각각 둘을 축약하여 [ㅋ, ㅌ, ㅍ]로 발음한다. 이는 한자어나 합성어 또는 파생어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R15]

>> /(k0|lk)-hh/ -> /-kh/

>> /t0-hh/ -> /-th/

>> /(c0|nc)-hh/ -> /-ch/

>> /(p0|lp)-hh/ -> /-ph/

\*rule ordering 필요할듯

* 국화[구콰]
* 정직하다[정ː지카다]
* 박하다[바카다]
* 박히다[바키다]
* 읽히다[일키다]
* 맏형[마텽]
* 숱하다[수타다]
* 굿하다[구타다]
* 잊히다[이치다]
* 얹히다[언치다]
* 입학[이팍]
* 급하다[그파다]
* 입히다[이피다]
* 밟히다[발피다]

붙임 2. 나아가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시된 ‘옷 한 벌, 낮 한때, 꽃 한 송이’ 등이 그것인데, 다음의 경우들도 그 예들이 된다.

[R16] 단어 간의 연결이 긴밀할 경우; 예외

if W1 and W2 연결 긴밀, (연결해 읽었을 경우)

>> /(k0|lk)#hh/ -> /-kh/

>> /t0#hh/ -> /-th/

>> /(c0#nc)-hh/ -> /-ch/

>> /(p0#lp)-hh/ -> /-ph/

* 온갖 힘[온ː가팀]
* 뭇 형벌[무텽벌]
* 몇 할[며탈]
* 밥 한 사발[바판사발]
* 국 한 대접[구칸대접]

물론 단어마다 끊어서 발음할 때에는 ‘옷 한 벌[옫 한 벌]’과 같이 발음한다.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한다.  
  
2. 받침 ‘ㅎ’이 ‘ㅅ’을 만나면 둘을 합쳐 [ㅆ]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이다.

[R10] 중복

>> /(hh|nh|lh)-s0/ -> /(hh|nh|lh)-ss/

* 끊습니다[끈씀니다]
* 끊사오니[끈싸오니]

3. ‘ㄴ’으로 시작된 어미 ‘-는(다), -네, -나’ 등 앞에서 받침 ‘ㅎ’은 [ㄴ]으로 동화시켜 발음한다.

[R17]

>> /hh-nn[+어미]/ -> /nn-nn[+어미]/

놓는[논는]

* 놓네[논네]
* 놓나[논나]

붙임. ‘ㄶ, ㅀ’ 뒤에 ‘ㄴ’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은 발음되지 않는데, 다만 ‘ㅀ’ 뒤에서는 ‘ㄴ’이 [ㄹ]로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20항 참조.)

[R18]

>> /nh-nn[+어미]/ -> /nn-nn/

>> /lh-nn[+어미]/ -> /ll-ll/

cf. [R12와 약간 중복, 모순]

* 끊는[끈는]
* 끊네[끈네]
* 끊나[끈나]
* 끓는[끌른]
* 끓네[끌레]
* 끓나[끌라]

4. 받침 ‘ㅎ, ㄶ, ㅀ’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될 때에는 그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R13] 중복

>> /(hh|nh|lh)-[vowel]/ -> /-[vowel]/

* 넣은[너은]
* 쌓을[싸을]
* 찧으니까[찌으니까]
* 끊은[끄는]
* 많을[마ː늘]
* 않으니까[아느니까]
* 옳은[오른]
* 싫을[시를]
* 곯으니까[고르니까]
* 쌓인[싸인]
* 끊일[끄닐]
* 끓이니까[끄리니까]

한자어나 복합어에서 모음과 ‘ㅎ’ 또는 ‘ㄴ, ㅁ, ㅇ, ㄹ’과 ‘ㅎ’이 결합된 경우에는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경제학(經濟學), 광어회(廣魚膾)’라든가 ‘신학(神學), 전화(電話), 피곤하다’, ‘임학(林學), 셈하다’, ‘공학(工學), 상학(商學), 경영학(經營學)’ 등의 경우가 그 예들이다. 그리고 다만 ‘실학(實學), 철학(哲學), 실하다, 팔힘’ 등과 같은 ‘ㄹ’과 ‘ㅎ’과의 결합에서는 ‘ㄹ’을 연음시키면서 ‘ㅎ’이 섞인 소리로 발음한다.

[R19] 변동 없음을 나타내는 룰이므로 사실상 없어도 됨

>> /(nn|mm|ng|ll|[vowel])-hh/ -> /(nn|mm|ng|ll|[vowel]-hh/

**제13항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R20]

if xy = [conso] (but 겹받침 제외)

>> /xy-[vowel]/ -> /-xy[vowel]/

* 깎아[까까]
* 옷이[오시]
* 있어[이써]
* 낮이[나지]
* 꽂아[꼬자]
* 꽃을[꼬츨]
* 쫓아[쪼차]
* 밭에[바테]
* 앞으로[아프로]
* 덮이다[더피다]

**해설**이 규정은 받침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하는 연음(連音)을 뜻하는 것인데, 홑받침의 경우다.

* 부엌이[부어키]
* 낯을[나츨]
* 밭의[바틔]
* 무릎에[무르페]
* 꺾어[꺼꺼]
* 쫓을[쪼츨]
* 같은[가튼]
* 짚으면[지프면]
* 섞여[서껴]
* 높여[노펴]

이 경우에 연음되는 받침은 본음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제12항에서 규정한 ‘ㅎ’의 탈락이라든가 제17항에서 보일 구개음화라든가 불규칙 활용과 같은 예외들이 있다.

\*rule ordering 필요한 지점

**제14항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R21]

if xy = [겹받침; ‘ㅎ’계열 제외]

>> /nc-[vowel]/ -> /nn-c0[vowel]/

>> /lk-[vowel]/ -> /ll-k0[vowel]/

>> /lm-[vowel]/ -> /ll-mm[vowel]/

>> /lp-[vowel]/ -> /ll-p0[vowel]/

>> /lT-[vowel]/ -> /ll-th[vowel]/

>> /lP-[vowel]/ -> /ll-ph[vowel]/

>> /(ks|ls|ps)-[vowel]/ -> /(k0|ll|p0)-ss

* 넋이[넉씨]
* 앉아[안자]
* 닭을[달글]
* 젊어[절머]
* 곬이[골씨]
* 핥아[할타]
* 읊어[을퍼]
* 값을[갑쓸]
* 없어[업ː써]

**해설**이 항도 제13항과 같은 연음에 대한 규정인데, 겹받침의 경우이다.

* 닭이[달기]
* 여덟을[여덜블]
* 삶에[살:메]
* 읽어[일거]
* 밟을[발블]
* 옮은[올믄]

말하자면 첫째 받침은 그대로 받침의 소리로 발음하되 둘째 받침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컨대 ‘닭이[달기], 통닭을[통달글]’과 같은 것이다. 이때에 연음되는 받침의 소리는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나, 제13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예외가 있다(앓아[아라], 끊어[끄너], 훑이다[훌치다]). 그리고 겹받침 ‘ㄳ, ㄽ, ㅄ’의 경우에는 ‘ㅅ’을 연음하되 된소리 [ㅆ]으로 발음한다.

이후 구개음화 부분에서 예외 보충해야. ‘ㅎ’-계열 겹받침 연음은 해결된 상황.

* 몫이[목씨]
* 넋을[넉쓸]
* 곬이[골씨]
* 외곬으로[외골쓰로]
* 값이[갑씨]
* 값에[갑쎄]
* 없이[업ː씨]
* 없으면[업ː쓰면]

**제15항받침 뒤에 모음 ‘ㅏ, ㅓ, ㅗ, ㅜ, ㅟ’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R22] if W2 beginning with (aa|vv|oo|uu|wi) is 실질형태소

(cf. [R2]의 변형)

>> /(kh|kk)-(aa|vv|oo|uu|wi)/ -> /k0-(aa|vv|oo|uu|wi)/

>> /(s0|ss|c0|ch|th)-(aa|vv|oo|uu|wi)/ -> /t0-(aa|vv|oo|uu|wi)/

>> /ph-(aa|vv|oo|uu|wi)/ -> /p0-(aa|vv|oo|uu|wi)/

[R20]

if xy = [conso] (but 겹받침 제외)

>> /xy-[vowel]/ -> /-xy[vowel]/

\*rule ordering: [R22]->[R20]

* 밭 아래[바다래]
* 늪 앞[느밥]
* 젖어미[저더미]
* 맛없다[마덥따]
* 겉옷[거돋]
* 헛웃음[허두슴]
* 꽃 위[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싣따], [머싣따]로도 발음할 수 있다.

[R23] ‘맛있다’, ‘멋있다’ 예외

>> /mmaas0-iiss-t0aa/ -> /mmaa-(t0|s0)iit0-ttaa/

>> /mmvvs0-iiss-t0aa/ -> /mmvv-(t0|s0)iit0-ttaa/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7)**](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00&mn_id=95)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앞에서 만든 겹받침 단순화 규칙들을 먼저 다 적용한 뒤에 음절 첫소리 연음규칙을 적용하면 개별적으로 겹받침을 위한 룰을 다시 세울 필요 없음.

* 넋 없다[너겁따]
* 닭 앞에[다가페]
* 값어치[가버치]
* 값있는[가빈는]

**해설**이 규정은 받침 있는 단어(또는 접두사)와 모음으로 시작된 단어와의 결합에서 발음되는 받침의 소리와 연음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밭 아래’는 ‘밭’을 일단 독립형인 [받]으로 발음하고 다시 모음 앞에서 그 받침 소리 [ㄷ]을 연음하여 결국 [바다래]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 받침 뒤에 오는 모음으로 ‘ㅏ, ㅓ, ㅗ, ㅜ, ㅟ’로 한정시킨 이유는, ‘ㅣ, ㅑ, ㅕ, ㅛ, ㅠ’와의 결합에서는 연음을 하지 않으면서 [ㄴ]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ㅐ, ㅔ, ㅚ’ 등을 들지 않은 것은 표준어에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조국애, 국외’ 같은 경우에는 연음시켜 발음해야 하고 ‘먼 외국’ 같은 경우에는 두 단어로 독립시켜 발음할 때에는 [먼ː외국]과 같이 연음하지 않고, 한 마디로 발음할 때에는 [머ː뇌국]과 같이 연음하여 발음한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딛따], [머딛따]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마싣따], [머싣따]도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도 원칙은 마찬가지다. 즉 독립형으로 쓰이는 받침의 소리로 위의 환경에서 연음한다. ‘값어치[가버치]’는 ‘10원 어치, 백 불($) 어치, 팔 푼 어치’ 등을 고려하여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해석한 결과다. ‘어치’는 자립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사전에서 이를 접미사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제16항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R24] 한글자모 예외

>> /-xxt0-[vowel]/ -> /-xx-s0[vowel]/

>> /-xx(t0|c0|ch|th|hh)-[vowel]/ -> /-xx-s0[vowel]/

>> /-xxkh-[vowel]/ -> /-xx-k0[vowel]/

>> /-xxph-[vowel]/ -> /-xx-p0[vowel]/

* 디귿이[디그시]
* 디귿을[디그슬]
* 디귿에[디그세]
* 지읒이[지으시]
* 지읒을[지으슬]
* 지읒에[지으세]
* 치읓이[치으시]
* 치읓을[치으슬]
* 치읓에[치으세]
* 키읔이[키으기]
* 키읔을[키으글]
* 키읔에[키으게]
* 티읕이[티으시]
* 티읕을[티으슬]
* 티읕에[티으세]
* 피읖이[피으비]
* 피읖을[피으블]
* 피읖에[피으베]
* 히읗이[히으시]
* 히읗을[히으슬]
* 히읗에[히으세]

**해설**한글 자모의 이름에 대한 발음 규정이다. 한글 자모의 이름은 첫소리와 끝소리 둘을 모두 보이기 위한 방식으로 붙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모음 앞에서 ‘디귿이[디그디], 디귿을[디그들]’ 등과 같이 발음하여야 하나, 실제 발음에서는 [디그시], [디그슬] 등과 같아 이 현실 발음을 반영시켜 규정화한 것이다. ‘꽃이[꼬시], 밤낮으로[밤나스로], 솥은[소슨], 무릎을[무르블], 부엌에[부어게]’ 등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보면 이 규정은 예외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한글 자모의 이름에 대한 발음은 맞춤법과 크게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붙인 근본 정신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전통성과 합리성에 어긋나면서 실제 발음만을 따른 결과다.

**제17항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R25]

>> /t0-ii[+조사|+접미사]/ -> /-c0ii[+조사|+접미사]/

>> /(th|lT)-ii[+조사|+접미사]/ -> /-chii[+조사|+접미사]/

* 곧이듣다[고지듣따]
* 굳이[구지]
* 미닫이[미ː다지]
* 땀받이[땀바지]
* 밭이[바치]
* 벼훑이[벼훌치]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R26]

>> /t0-hhii[+접미사]/ -> /-chii[+접미사]/

* 굳히다[구치다]
* 닫히다[다치다]
* 묻히다[무치다]

**해설**이른바 구개음화에 대한 규정이다. 즉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면 연음하여 발음하되 ‘ㄷ, ㅌ’을 각각 [ㅈ, ㅊ]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예컨대 ‘밭은[바튼], 밭을[바틀], 밭에[바테]’와 같이 모음 앞에서 본음대로 연음시켜 발음하되, 다만 모음 ‘ㅣ’ 앞에서는 ‘밭이[바치], 밭이다[바치다], 밭입니다[바침니다]’와 같이 받침 ‘ㅌ’을 구개음 [ㅊ]으로 바꾸어 연음시켜 발음하는 것이다. ‘해돋이[해도지], 낱낱이[난ː나치], 훑이다[훌치다]’ 등도 마찬가지다.(한글 맞춤법 제6항 참조.)  
  
붙임. ‘이’ 이외에 ‘히’가 결합될 때에도 받침 ‘ㄷ’과 합하여 [ㅊ]으로 구개음화하여 발음한다. 즉 ‘걷히다[거치다], 받히다[바치다]’ 등이 그 예다.  
  
구개음화는 조사나 접미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도 있고 합성어에서는 받침 ‘ㄷ, ㅌ’ 다음에 ‘이’로 시작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을 때에도 구개음화는 일어날 수 없다. 예컨대 ‘밭이랑[반니랑], 홑이불[혼니불]’ 등과 같이 ‘ㄴ’에 의해서 ‘ㅌ’이 [ㄴ]으로 발음된다.

**제18항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ㄼ, ㄿ, ㅄ)’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R27]

>> /(k.|lk)-(nn|mm)/ -> /ng-(nn|mm)/

>> /(s.|t.|c.|hh)-(nn|mm)/ -> /nn-(nn|mm)/

>> /(p.|lp|lP|ps)-(nn|mm)/ -> /mm-(nn|mm)/

* 먹는[멍는]
* 국물[궁물]
* 깎는[깡는]
* 키읔만[키응만]
* 몫몫이[몽목씨]
* 긁는[긍는]
* 흙만[흥만]
* 닫는[단는]
* 짓는[진ː는]
* 옷맵시[온맵씨]
* 있는[인는]
* 맞는[만는]
* 젖멍울[전멍울]
* 쫓는[쫀는]
* 꽃망울[꼰망울]
* 붙는[분는]
* 놓는[논는]
* 잡는[잠는]
* 밥물[밤물]
* 앞마당[암마당]
* 밟는[밤ː는]
* 읊는[음는]
* 없는[엄ː는]
* 값매다[**8)**](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01&mn_id=95)[감매다]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두 segments가 단어 경계(#)로 나뉜 (표기상으로는, 띄어 쓴) 경우에도 /A#B/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R27이 적용된다는 말. 어떻게 ‘이어서 발음’하는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지 모르겠음.

* 책 넣는다[챙넌는다]
* 흙 말리다[흥말리다]
* 옷 맞추다[온맏추다]
* 밥 먹는다[밤멍는다]
* 값 매기다[감매기다]

**해설**‘ㄴ, ㅁ’ 등의 비음 앞에서 받침의 소리 [ㄱ, ㄷ, ㅂ]이 각각 [ㅇ, ㄴ, ㅁ]으로 동화되어 발음됨을 규정한 것이다. 예컨대 ‘값만, 없는’은 우선 ‘ㅅ’을 탈락시키고서 ‘ㅁ, ㄴ’에 의하여 ‘ㅂ’이 [ㅁ]으로 역행 동화되어 [감만], [엄ː는]으로 발음된다.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ㅆ, ㅈ, ㅊ, ㄷ, ㅌ’ 받침은 ‘ㄴ, ㅁ’ 앞에서 모두 [ㄴ]으로 발음된다.

\*rule ordering 필요해 보이지만 사실 R27의 인풋에 모든 orthographical form을 줘버렸으므로 (ex: 값만 속 ‘ㅄ’(ps) -> ‘ㅁ’(mm)) ‘ㅅ’이 탈락한다든지 하는 과정은 굳이 룰로 만들지 않아도 될 듯. 그래도 다시 주의해 생각해볼 지점.

붙임. 위와 같은 환경만 주어지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비음으로 바뀐다.

이전 붙임 내용(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시~)과 동일한 내용.

* 국 마시다[궁마시다]
* 옷 마르다[온마르다]
* 입 놀리다[임놀리다]

**제19항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R28]

>> /(mm|ng)-ll/ -> /(mm|ng)-nn/

* 담력[담ː녁]
* 침략[침냑]
* 강릉[강능]
* 항로[항ː노]
* 대통령[대ː통녕]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R29]

>> /(k0|p0)-ll/ -> /(k0|p0)-nn/

\*rule ordering; orthographically ‘ㄱ,ㅂ’ 아니지만 neutralized coda로 만들어지는 ‘ㄱ,ㅂ’에도 모두 적용되는 건지 따져 보아야.

* 막론[막논→망논]
* 백리[**9)**](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01&mn_id=95)[백니→뱅니]
* 협력[협녁→혐녁]
* 십리[**10)**](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01&mn_id=95)[십니→심니]

**해설**한자어에서 받침 ‘ㅁ, ㅇ’ 뒤에 결합되는 ‘ㄹ’을 [ㄴ]으로 발음하는 규정이다. 본래 ‘ㄹ’을 첫소리로 가진 한자는 ‘ㄴ, ㄹ’ 이외의 받침 뒤에서는 언제나 ‘ㄹ’이 [ㄴ]으로 발음된다.

[R30]   
>> /^(nn|ll)-ll[+한자]/ -> /^(nn|ll)-nn[+한자]/

붙임. 받침 ‘ㄱ, ㅂ’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되는데, 그 [ㄴ] 때문에 ‘ㄱ, ㅂ’은 다시 [ㅇ, ㅁ]으로 역행 동화되어 발음된다. 예컨대 ‘막론(莫論)’은 ‘[막논]→[망논]’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rule ordering: R29 -> R27

[R29]

>> /(k0|p0)-ll/ -> /(k0|p0)-nn/

[R27]

>> /(k.|lk)-(nn|mm)/ -> /ng-(nn|mm)/

>> /(s.|t.|c.|hh)-(nn|mm)/ -> /nn-(nn|mm)/

>> /(p.|lp|lP|ps)-(nn|mm)/ -> /mm-(nn|mm)/

**제20항‘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R31]

>> /nn-ll/ -> /ll-ll/

>> /ll-nn/ -> /ll-ll/

**(1)**

* 난로[날ː로]
* 신라[실라]
* 천리[철리]
* 광한루[광ː할루]
* 대관령[대ː괄령]

**(2)**

* 칼날[칼랄]
* 물난리[물랄리]
* 줄넘기[줄럼끼]
*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ㅀ’, ‘ㄾ’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R32]

>> /(lh|lT)-nn/ -> /ll-ll/

\*rule ordering 및 rule 정리 필요지점

R31에서의 ‘nn’은 OR에 한정한다는 것

* 닳는[달른]
* 뚫는[뚤른]
* 핥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R33] 주어진 예외단어들에만 적용

\*Apply R33 if given string is included in <<the exception wordlist>>

>> /nn-ll/ -> /nn-nn/

>> /ll-nn/ -> /nn-nn/

* 의견란[의ː견난]
* 임진란[임ː진난]
* 생산량[생산냥]
* 결단력[결딴녁]
* 공권력[공꿘녁]
* 동원령[동ː원녕]
* 상견례[상견녜]
* 횡단로[횡단노]
* 이원론[이ː원논]
* 입원료[이붠뇨]
* 구근류[구근뉴]

**해설**‘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동화되어 발음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1)은 한자어의 경우이고 (2)는 합성어 또는 파생어의 경우와 ‘-(으)ㄹ는지’의 경우이다. 이상의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ㄴ’을 [ㄹ]로 발음한다. 물론 이때에는 한 마디로 발음한다.

* 갈 놈[갈롬]
* 바람 잦을 날[바람자즐랄]

붙임. ‘ㅀ, ㄾ’과 같이 자음 앞에서 [ㄹ]이 발음되는 용언 어간 다음에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그 ‘ㄴ’을 ‘ㄹ’로 동화시켜 발음한다. 즉 ‘앓는[알른], 앓나[알라], 앓네[알레]’와 같이 발음한다.

R32와 동일한 내용. 추가적인 룰 필요X.

홑받침 ‘ㄹ’ 다음에 ‘ㄴ’이 올 때에는 ‘아는, 아나, 아네’ 등과 같이 ‘ㄹ’이 탈락된 대로 표기하도록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다.(한글 맞춤법 제18항 참조.)

OR-SR 맵핑과 무관한 부분.

다만. 한자어에서 ‘ㄴ’과 ‘ㄹ’이 결합하면서도 [ㄹㄹ]로 발음되지 않고 [ㄴㄴ]로 발음되는 예들을 보인 것이다. ‘권력[궐력]’에 대해서 '공권력[공꿘녁]'인 셈인데, 실제의 발음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기에 [ㄴㄴ]으로 발음하는 단어와 [ㄹㄹ]로 발음하는 단어는 개별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그 발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R33을 적용할 때 주의할 부분. ‘권력’은 R33 미적용 대상인 반면, ‘공권력’은 적용 대상이 됨. 즉, 목록 상의 예외단어들이 정확히 input string에 존재해야 R33 적용 가능.

**제21항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1항까지 언급한 룰들 외의 다른 룰은 없음을 확인해주는 뜻이므로 추가적 룰 생성 필요 없음.

* 감기[감ː기](×[강ː기])
* 옷감[옫깜](×[옥깜])
* 있고[읻꼬](×[익꼬])
* 꽃길[꼳낄](×[꼭낄])
* 젖먹이[전머기](×[점머기])
* 문법[문뻡](×[뭄뻡])
* 꽃밭[꼳빧](×[꼽빧])

**해설**‘신문’을 때로는 역행 동화된 [심문]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위치 동화를 표준 발음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옷감’을 [옫깜, 옥깜, 오깜]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걷습니다’를 [걷ː씀니다, 거ː씀니다]로 발음하기도 하며, ‘꽃밭’도 [꼳빧, 꼽빧, 꼬빱]으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옫깜], [걷ː씀니다], [꼳빧]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음 앞에서 발음되는 받침에 대한 규정(특히 제9항)을 중시한 것이며, 수의적으로 역행 동화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제22항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기본 표준형을 [어]로 보고 단일한 표준발음을 설정하는 편이 우리 차원에서는 더 깔끔할 듯.

* 되어[되어/되여]
* 피어[피어/피여]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R34] 이오/아니오 예외

>> /ii-oo$/ -> /ii-jo/

본 붙임 규정에서는 ‘이오’의 발음으로 [이오]와 [이요] 모두를 복수표준형으로 인정하나, 실제 사용자들의 발음 경향을 고려할 때 [이요]가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일 표준발음으로 일단은 /ii-jo/를 output으로 규정해 둠.

(단일표준형으로 [이오]를 따르고자 할 시 R34는 삭제.)

**해설**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될 때에 나타나는 모음 충돌에 대한 발음 규정이다. ‘되＋어→되어’는 [되어]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때로 모음 충돌을 피한 발음인 [되여]가 쓰이기도 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이 허용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오, 아니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제23항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R35]

>> /(k.|lk|s.|c.|t.|p.|lp|lP)-k0/ -> /(k.|lk|s.|c.|t.|p.|lp|lP)-kk/

>> /(k.|lk|s.|c.|t.|p.|lp|lP)-t0/ -> /(k.|lk|s.|c.|t.|p.|lp|lP)-tt/

>> /(k.|lk|s.|c.|t.|p.|lp|lP)-p0/ -> /(k.|lk|s.|c.|t.|p.|lp|lP)-pp/

>> /(k.|lk|s.|c.|t.|p.|lp|lP)-s0/ -> /(k.|lk|s.|c.|t.|p.|lp|lP)-ss/

>> /(k.|lk|s.|c.|t.|p.|lp|lP)-c0/ -> /(k.|lk|s.|c.|t.|p.|lp|lP)-cc/

* 국밥[국빱]
* 깎다[깍따]
* 넋받이[넉빠지]
* 삯돈[삭똔]
* 닭장[닥짱]
* 칡범[칙뻠]
* 뻗대다[뻗때다]
* 옷고름[옫꼬름]
* 있던[읻떤]
* 꽂고[꼳꼬]
* 꽃다발[꼳따발]
* 낯설다[낟썰다]
* 밭갈이[받까리]
* 솥전[솓쩐]
* 곱돌[곱똘]
* 덮개[덥깨]
* 옆집[엽찝]
* 넓죽하다[넙쭈카다]
* 읊조리다[읍쪼리다]
* 값지다[갑찌다]

**해설**[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 ㅄ)’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각각 발음되는 된소리되기를 규정한 것이다. 한 단어 안에서나 체언의 곡용 및 용언의 활용에서나 위의 환경에서는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4항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R36]

>> /(nn|nc|.m)[+어간받침]-k0/ -> /(nn|nc|.m)[+어간받침]-kk/

>> /(nn|nc|.m)[+어간받침]-t0/ -> /(nn|nc|.m)[+어간받침]-tt/

>> /(nn|nc|.m)[+어간받침]-s0/ -> /(nn|nc|.m)[+어간받침]-ss/

>> /(nn|nc|.m)[+어간받침]-c0/ -> /(nn|nc|.m)[+어간받침]-cc/

* 신고[신ː꼬]
* 껴안다[껴안따]
* 앉고[안꼬]
* 닮고[담ː꼬]
* 삼고[삼ː꼬]
* 더듬지[더듬찌]
* 얹다[언따]
* 젊지[점ː찌]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R37] 예외규칙; 피동사동접미사 ‘-기-’

>> /(nn|nc|.m)[+어간받침]-k0ii[+피동사동접미사]/ -> /(nn|nc|.m)[+어간받침]-k0ii[피동사동접미사]/

* 안기다
* 감기다
* 굶기다
* 옮기다

**해설**용언 어간의 받침이 ‘ㄴ(ㄵ), ㅁ(ㄻ)’일 때에도 뒤에 오는 ‘ㄱ, ㄷ, ㅅ, ㅈ’을 된소리인 [ㄲ, ㄸ, ㅆ, ㅉ]으로 각각 발음한다. 이는 용언 어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체언의 경우에는 ‘신도[신도], 신과[신과]’라든가 ‘바람도[바람도], 바람과[바람과]’ 등과 같이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하지 않는다.

R36이 어간받침에만 적용된다는 것 재확인. 체언일 경우 적용되지 않으니 명확히 체크.

다만. ‘ㄴ, ㅁ’ 받침을 가진 용언 어간의 피동·사동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않아서 ‘안기다[안기다], 남기다[남기다], 굶기다[굼기다]’와 같이 발음한다. 일종의 활용 형식인 용언의 명사형의 경우에는 ‘안기[안ː끼], 남기[남ː끼], 굶기[굼끼]’와 같이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5항어간 받침 ‘ㄼ, ㄾ’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R38]

>> /(lp|lT)[+어간]-k0[+어미]/ -> /(lp|lT)[+어간]-kk[+어미]/

>> /(lp|lT)[+어간]-t0[+어미]/ -> /(lp|lT)[+어간]-tt[+어미]/

>> /(lp|lT)[+어간]-s0[+어미]/ -> /(lp|lT)[+어간]-ss[+어미]/

>> /(lp|lT)[+어간]-c0[+어미]/ -> /(lp|lT)[+어간]-cc[+어미]/

* 넓게[널께]
* 핥다[할따]
* 훑소[훌쏘]
* 떫지[떨ː찌]

**해설**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겹받침 ‘ㄼ, ㄾ’ 다음에서도 뒤에 연결되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용언 어간에 한정되는 규정인데, 체언의 경우에는 ‘여덟도[여덜도], 여덟과[여덜과], 여덟보다[여덜보다]’처럼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받침 ‘ㅀ’의 경우에는 이미 제12항에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을 겹받침에 한정시킨 것은 홑받침 ‘ㄹ’ 다음에서는 ‘알고, 알더니, 알지’와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규정한 내용들에 중복되는 설명.

**제26항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R39]

>> /ll[+한자어]-t0/ -> /ll[+한자어]-tt/

>> /ll[+한자어]-s0/ -> /ll[+한자어]-ss/

>> /ll[+한자어]-c0/ -> /ll[+한자어]-cc/

* 갈등[갈뜽]
* 발동[발똥]
* 절도[절또]
* 말살[말쌀]
* 불소[불쏘](弗素)
* 일시[일씨]
* 갈증[갈쯩]
* 물질[물찔]
* 발전[발쩐]
* 몰상식[몰쌍식]
* 불세출[불쎄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R40] R39의 예외규정

>> do NOT apply R39

if the two syllables are identical

if the two syllables are sino-korean

*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해설**한자어에서 받침 ‘ㄹ’ 다음에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 물건, 불복, 설계, 열기, 절기, 출고, 팔경, 활보’ 등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예들이 많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사전에서 그 발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R39의 예외들

사실상 R39가 활발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 예외사항이 많다. 어떤 조건 하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지 밝혀진 바 없어 하나하나 규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같은 한자가 겹친 첩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 결결[결결](缺缺)
* 별별[별별](別別)

**제27항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R41]

>> /(xx)ll[+관형사형]-k0/ -> /(xx)ll[+관형사형]-kk/

>> /(xx)ll[+관형사형]-t0/ -> /(xx)ll[+관형사형]-tt/

>> /(xx)ll[+관형사형]-p0/ -> /(xx)ll[+관형사형]-pp/

>> /(xx)ll[+관형사형]-s0/ -> /(xx)ll[+관형사형]-ss/

>> /(xx)ll[+관형사형]-c0/ -> /(xx)ll[+관형사형]-cc/

* 할 것을[할꺼슬]
* 갈 데가[갈떼가]
* 할 바를[할빠를]
* 할 수는[할쑤는]
* 할 적에[할쩌게]
* 갈 곳[갈꼳]
* 할 도리[할또리]
* 만날 사람[만날싸람]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끊어서 말하는 경우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 편이 나을 듯.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R42] R41의 보충

>> /(xx)ll[+어미]-k0/ -> /(xx)ll[+어미]-kk/

>> /(xx)ll[+어미]-t0/ -> /(xx)ll[+어미]-tt/

>> /(xx)ll[+어미]-p0/ -> /(xx)ll[+어미]-pp/

>> /(xx)ll[+어미]-s0/ -> /(xx)ll[+어미]-ss/

>> /(xx)ll[+어미]-c0/ -> /(xx)ll[+어미]-cc/

* 할걸[할껄]
* 할밖에[할빠께]
* 할세라[할쎄라]
* 할수록[할쑤록]
* 할지라도[할찌라도]
* 할지언정[할찌언정]
* 할진대[할찐대]

**해설**관형사형 ‘-ㄹ, -을’ 다음에서는 ‘ㄱ, ㄷ, ㅂ, ㅅ, ㅈ’을 각각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 다음에 오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보조 용언일 경우에도 역시 그 다음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R41이 예외없이 적용됨을 설명.

* 할 듯하다[할뜨타다]
* 할 법하다[할뻐파다]
* 할 성싶다[할썽십따]

붙임. 관형사형 어미와 같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에서도 역시 ‘ㄹ’ 뒤에 오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각각 발음한다. 예컨대 ‘-(으)ㄹ거나, -(으)ㄹ세, -(으)ㄹ수록, -(으)ㄹ지, -(으)ㄹ진대’ 등이 그 예들이다. ‘-(으)ㄹ까, -(으)ㄹ꼬, -(으)ㄹ쏘냐’는 아예 된소리로 표기한다.

R42에 대한 부연설명.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던’ 등 ‘ㄴ’ 받침을 가진 어미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앞서 ‘ㄴ’받침 가진 어미 뒤에서 된소리화되는 규정은 없었으므로 (있었다면 여기서 예외규정 만들어야) 규칙 추가생성 필요 없음.

* 간 사람[간사(ː)람]
* 가는 사람[가는사(ː)람]
* 가던 사람[가던사(ː)람]
* 입는다[임는다]
* 입는데[임는데]
* 입는지[임는지]

**제28항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R43] (보이지 않는) 사이시옷 규정 \*\*\*문제많음

>> (N2의 initial onset)‘k0, t0, p0, s0, c0’ 경음화

if…

1) 사이시옷 표기 X

2) N1+N2 구성의 합성어

3) N1-N2간 관형격 의미관계 형성

즉, 휴지(휴지가 왜 관형격 표지? 이상한 규정)성립

* 문-고리[문꼬리]
* 눈-동자[눈똥자]
* 신-바람[신빠람]
* 산-새[산쌔]
* 손-재주[손째주]
* 길-가[길까]
* 물-동이[물똥이]
* 발-바닥[발빠닥]
* 굴-속[굴ː쏙]
* 술-잔[술짠]
* 바람-결[바람껼]
* 그믐-달[그믐딸]
* 아침-밥[아침빱]
* 잠-자리[잠짜리]
* 강-가[강까]
* 초승-달[초승딸]
* 등-불[등뿔]
* 창-살[창쌀]
* 강-줄기[강쭐기]

**해설**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능상 사이시옷이 있을 만한 합성어의 경우에 된소리로 발음되는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시옷은 15세기의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관형격의 기능을 나타냈던 것이나, 현대 국어로 내려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서 사이시옷에 의한 된소리의 실현도 일정치가 않다. ‘나뭇집(나무를 파는 집)’과 ‘나무집(나무로 만든 집)’은 그런대로 관형격의 기능을 보여 주지만 ‘돌집[돌ː찝](돌로 지은 집)’은 관형격의 기능이 있을 수 없음에도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리하여 사이시옷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된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한글 맞춤법 제30항 참조.)  
  
사이시옷이 표기상으로 드러난 경우에 그 사이시옷에 관련된 발음에 대한 규정은 제30항인데, ‘음의 첨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제28항과 분리시켜 배열하였다.

\*rule ordering 고려 필요지점. 관계 없을 수도.

**제29항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R44] 여기서 %는 형태소 경계.

>> /[conso][+합성어or파생어]%(ii|ya|yv|yo|yu)/ -> /[conso][+합성어or파생어]-nn(ii|ya|yv|yo|yu)/

* 솜-이불[솜ː니불]
* 홑-이불[혼니불]
* 막-일[망닐]
* 삯-일[상닐]
* 맨-입[맨닙]
* 꽃-잎[꼰닙]
* 내복-약[내ː봉냑]
* 한-여름[한녀름]
* 남존-여비[남존녀비]
* 신-여성[신녀성]
* 색-연필[생년필]
* 직행-열차[지캥녈차]
* 늑막-염[능망념]ㅇ
* 콩-엿[콩녇]
* 담-요[담ː뇨]
* 눈-요기[눈뇨기]
* 영업-용[영엄뇽]
* 식용-유[시굥뉴]
* 국민-윤리[궁민뉼리]
* 밤-윷[밤ː뉻]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R44의 예외단어들.

복수 표준발음을 허용하는 경우라 단일로 갈 지, 고민해보아야. 복수를 허용하거나 R44적용 안하는 쪽으로 아래 단어들의 표준발음법을 규정할 경우 추가적인 규칙 생성 필요.

cf. 룰 단순화를 위해 일단은 아래 단어들도 R44적용하는 쪽으로 단일표준발음 인정.

*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먀금]
* 검열[검ː녈/거ː멸]
* 욜랑-욜랑[욜랑뇰랑/욜랑욜랑]
* 금융[금늉/그뮹]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R45] R44적용된 결과로 나타난 [nn]에만 적용

>> /ll[+합성어or파생어]-nn(ii|ya|yv|yo|yu)/ -> /ll[+합성어or파생어]-ll(ii|ya|yv|yo|yu)/

\*rule ordering: R44->R45

* 들-일[들ː릴]
* 솔-잎[솔립]
* 설-익다[설릭따]
* 물-약[물략]
* 불-여우[불려우]
* 서울-역[서울력]
* 물-엿[물렫]
* 휘발-유[휘발류]
* 유들-유들[유들류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11)**](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03&mn_id=95)

[R46-47] R44와 R45의 보충. but여기서도 ‘두 단어를 이어서 발음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R46] R44의 보충

>> /[conso]#(ii|ya|yv|yo|yu)/ -> /[conso]-nn(ii|ya|yv|yo|yu)/

[R47] R45의 보충

>> /ll#nn(ii|ya|yv|yo|yu)/ -> /ll-ll(ii|ya|yv|yo|yu)/

\*rule ordering: R46->R47

* 한 일[한닐]
* 할 일[할릴]
* 옷 입다[온닙따]
* 잘 입다[잘립따]
* 서른여섯[서른녀섣]
* 스물여섯[스물려섣]
* 3 연대[삼년대]
* 1 연대[일련대]
* 먹은 엿[머근녇]
* 먹을 엿[머글렫]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R48] 예외규칙

아래 다섯 단어들의 SR은 마지막에 일일이 입력해야 할 듯

* 6·25[유기오]
* 8.15[파리로]
* 3·1절[사밀쩔]
* ㅁ[등용문][**12)**](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03&mn_id=95)

**해설**한자어, 합성어 및 접두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을 첨가시켜 발음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 요소의 받침은 첨가된 ‘ㄴ’ 때문에 비음으로 발음된다. 예컨대 ‘짓이기다’는 ‘ㄴ’이 첨가되어 ‘짓-니기다’와 같이 되고 다시 [ㄴ] 앞에서 ‘짓’은 [진]이 되어 결국 [진니기다]로 발음하게 된다. ‘남존여비’는 ‘ㄴ’이 첨가되고 ‘ㄴ’에 의한 역행 동화가 더 이상 불필요하여 [남존녀비]로 발음한다.  
  
다만, 어떤 단어들은 위와 같이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기도 하지만, 표기대로 ‘ㄴ’ 첨가 없이 발음하기도 한다. ‘검열[검ː녈/거ː멸]’ 같은 것이 그것인데, 특히 ‘이죽이죽, 야금야금, 욜랑욜랑’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기죽이기죽’은 ‘ㄴ’의 첨가 없이 발음하고, ‘야옹야옹[야옹냐옹]’은 ‘ㄴ’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따라서 ‘ㄴ’이 첨가된 경우에는 사전에서 그 발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ㄹ’ 받침 뒤에서 첨가되는 ‘ㄴ’은 [ㄹ]로 동화시켜 발음한다. 예컨대 ‘수원역’에서는 ‘ㄴ’을 첨가하여 [수원녁]으로 발음되지만 ‘서울역’에서는 [ㄹ]로 동화되어 [서울력]으로 발음한다. 만일 이러한 소리의 첨가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히 앞의 자음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 절약[저략]
* 월요일[워료일]
* 목요일[모교일]
* 금요일[그묘일]

‘이글이글’ 같은 단어는 [이글리글/이그리글]의 두 가지 발음이 모두 가능하나, ‘유월 유두’는 [유월류두]로 발음한다. 따라서 ‘ㄹ’의 첨가도 사전에 표시되어야 한다.  
  
붙임 2. 위와 같은 환경이지만 두 단어를 한 단어처럼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준한다. 예컨대 ‘한 일[한닐], 할 일[할릴]’ 같은 경우다. ‘잘 입다, 잘 익히다, 못 이기다, 못 잊다’ 등의 경우에는 ‘ㄴ’(또는 ‘ㄹ’)의 첨가 없이도 발음하는데, 이는 두 단어로 인식하고서 발음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자립따]’라든가 ‘[모디기다]’와 같이 연음하여 발음한다. 다만. ‘ㄴ, ㄹ’을 첨가하지 않고 발음하는 예들이다. ‘6.25[유기오]’뿐만 아니라 ‘8.15[파리로]’도 소리의 첨가 없이 발음한다.  
  
이상은 한자어나 합성어 및 파생어 안에서 소리가 첨가되는 데에 대한 규정이었다. 그런데 ‘-이오?’(이것은 책이오?)를 줄여서 ‘-요?’라고 할 경우에는 ‘ㄴ’이나 ‘ㄹ’의 첨가 없이 받침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

\*고민

의문형 어미 ‘-요?(=이오?)’에서는 ‘ㄴ/ㄹ’ 첨가 없이 앞 받침을 연음하라는 규정인데 실제 사용자들의 발음과는 너무 멀어진 부분이라 생각되어 고민스러운 부분.

ex: ‘얼음물’요? [표준; 어름무료?] / [실제; 어름물료?]

* 문-요?[무뇨]
* 담-요?[다묘]
* 물-요?[무료]
* 상-요?[상요]

**제30항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R49]

>> /s0-k0/ -> /s0-kk/

>> /s0-t0/ -> /s0-tt/

>> /s0-p0/ -> /s0-pp/

>> /s0-s0/ -> /s0-ss/

>> /s0-c0/ -> /s0-cc/

단일표준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허용한 형태인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정하지 않았음.

cf. 모든 coda ‘ㅅ’는 사이시옷인가? (현재 여기서 정한 모든 사이시옷 룰들은 모든 coda s0를 사이시옷으로 보았음) 아니라면 사이시옷을 어떻게 골라내어 표기할 것인가?

* 냇가[내ː까/낻ː까]
* 샛길[새ː낄/샏ː낄]
* 빨랫돌[빨래똘/빨랟똘]
* 콧등[코뜽/콛뜽]
* 깃발[기빨/긷빨]
* 대팻밥[대ː패빱/대ː팯빱]
* 햇살[해쌀/핻쌀]
* 뱃속[배쏙/밷쏙]
* 뱃전[배쩐/밷쩐]
* 고갯짓[고개찓/고갣찓]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R50]

>> /s0-nn/ -> /nn-nn/

>> /s0-mm/ -> /nn-mm/

* 콧날[콛날→콘날]
* 아랫니[아랟니→아랜니]
* 툇마루[퇻ː마루→퇸ː마루]
* 뱃머리[밷머리→밴머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R51]

>> /s0-ii/ -> /nn-nnii/

* 베갯잇[베갣닏→베갠닏]
* 깻잎[깯닙→깬닙]
* 나뭇잎[나묻닙→나문닙]
* 도리깻열[도리깯녈→도리깬녈]
* 뒷윷[뒫ː뉻→뒨ː뉻]

**해설**사이시옷이 표기된 경우의 그 발음에 대한 규정이다. 이 발음 규정을 정함에는 논란이 극히 심하였다. 예컨대 ‘냇가’의 발음을 [낻ː까]로 할 것인가 [내ː까]로 할 것인가, 또 ‘깃발'의 경우 [긷빨]로 할 것인가 [기빨]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기빨]은 [긷빨]→[깁빨]→[기빨]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긷빨]을 표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기빨]과 [긷빨] 모두를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게 하였다. [깁빨]은 제2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ㄴ, ㅁ’ 같은 비음 앞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경우에는 ‘ㅅ→ㄷ→ㄴ’의 과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한다. 즉 ‘콧날’은 [콛날]→[콘날]의 과정에 따라 [콘날]로 발음된다. ‘뱃머리’의 경우에는 [밴머리]가 표준 발음이 되고 위치 동화까지 일어난 [뱀머리]는 제2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rule ordering 그리고 사이시옷 규정 전반의 문제

[낻까] 식으로 앞 음절 종성 ‘ㄷ’을 단일표준형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앞선 다른 rule들과 조화를 이룰 듯. (‘ㅅ’-종성 neutralization적용).

그리고 여기 나온 해설들에 따르면 제30항 사이시옷 규정들이 결국 앞선 OR->SR규칙들에 의해 다 설명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사이시옷이라는 분류 하에 부연한 내용에 불과. 따라서 R49부터는 불필요한 내용일 수 있음. 논리관계 따져볼 것.

사이시옷 뒤에 ‘이’ 또는 ‘야, 여, 요, 유’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이 첨가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은 자연히 [ㄴ]으로 발음된다.

\*rule ordering

제29항 하의 ‘ㄴ’첨가 규칙(R44)이 사이시옷 규칙(R50)보다 앞서 적용되어 자연히 사이시옷이 ‘nn’으로 도출된다는 내용.

rule ordering; R44->R50.

* 뒷일[뒨ː닐]
* 깻잎[깬닙]
* 도리깻열[도리깬녈]
* 뒷윷[뒨ː뉻]